

서울대학교 장성호 교수팀, 시냅스전세포자가 포식 조절기전 새롭게 밝혀내

✎ 한상형 기자 | ⌚ 승인 2025.10.10 08:06



서울대 전경

[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]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뇌 질환은 현재 인류가 가장 집중하고 연구하는 의학 분야 중 하나다. 2016년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하며 큰 관심을 받았던 ‘자가포식 (autophagy)’은 이러한 뇌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지며 관련 기사를 밝히려는 많은 과학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

하지만 여전히 뇌 속 신경세포, 특히 신호를 보내는 출발점인 시냅스전세포에서 자가포식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구체적인 분류·전달 기전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.

서울대학교(총장 유홍림)는 의과대학 장성호 교수 연구팀(공동 제1저자: 류승현 석사후연구원, 이정민 박사과정생)이 시냅스전세포에서 자가포식의 구체적인 분류·전달 기전에 새로운 단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. 해당 연구팀은 시냅스전세포에서 자가포식을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인 ATG9A가 제 위치를 찾도록 돕는 중요한 조력자가 SCAMP5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밝혔다.

연구 결과에 따르면, SCAMP5 단백질은 PI4KB 단백질과 결합해 세포 내 단백질 및 지질 분류센터로 알려진 트랜스골지체로 이동한다. 이 과정에서 세포 신호전달에 필수적인 PtdIns4P이 생성되며, 생성된 PtdIns4P로 모집된 AP-4 단백질은 ATG9A 단백질은 ATG9A가 시냅스전세포로 정확히 도달하도록 안내한다. 만약 SCAMP5 단백질이 사라질 경우, 이 정교한 시스템이 모두 무너져 시냅스전세포에서의 자가포식 현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래된 단백질이 세포 안에 쌓이게 돼 결국 신경세포 손상과 사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.

이번에 밝혀진 기전을 통해 시냅스전세포에서 단백질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으며, 이는 앞으로 자가포식과 신경 퇴행성 뇌 질환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에도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.

해당 연구 결과는 세포생물학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 'Autophagy'에 2025년 9월 16일자로 실렸다.

한상형 기자 han@lecturernews.com

저작권자 © 한국강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